어린이 과학교육 체험 확대

순창군-국립과천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기술지원·콘텐츠 체험 등 협력

순창군과 국립과천과학관이 13일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창군(군수 황숙주)과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정모)이 13일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순창군이 순창 투자선도지구내 과학원리체험콘텐츠 보급과 과학 전시시설 구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식은 황숙주 순창군수와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 등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아치형 다리, 진공에서 낙하 및 공기압 느끼기, 디지털현미경, 휘어지는 빛 등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았던 과학콘텐츠 상설형 5종과 이동형 7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받게 됐다.

또한 과학교육프로그램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도 진행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순창군을 찾는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계획이다.

군은 우선 국립과천과학관이 지원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투자선도지구내 어린이 과학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학관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어린이과학관 지원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되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과학관, 도서관 등이 한 건물에 복합시설로 조성되고 있어 오롯이 아이들만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창군은 앞으로도 과천과학관과 협의를 통해 개발된 콘텐츠를 순창에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투자선도지구를 전통과학의 놀이가 가득한 재미있는 꿈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어릴 때 꿈을 꾸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이번 과천과학관과의 협약을 통해 미래 물리학자, 천체학자 등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된 농촌 어린이들에게도 소중한 과학교육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2015년 고추장마을 일원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받아 내년까지 어린이 과학관, 푸드사이언스관, 미생물뮤지엄, 어린이실내놀이터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임실군, 농가 영농현황 조사
주민소득지원시스템 담당자 교육

임실군이 농가 및 생산자단체 영농현황 실태조사를 이달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영농실태 조사는 농업 현황자료의 연도별 D/B 구축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임실군 지역농업의 변화 추이와 농업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의 기본현황, 생산시설, 재배 작목, 농가 조수입 교육 이수 현황 등 전반을 조사한다.

한편, 군은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12일 전산 입력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시스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중앙부처 방문 예산 확보 총력

전경식 남원시 부시장, 행안부·국토부 방문 현안사업 지원 건의

남원시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중앙부처 출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13일 전경식 부시장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 시의 현안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의 현안과 재난수요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의 하나인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사업비 40억원 소요)을 통한 시민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서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시설의 조기 완공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전 부시장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복구 사업을 조속한 시행으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남원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21~2025)에 국도 24호선(이백~운봉) 2차로 개량사업과 국지도 37호선(인월~아영) 2차로 확장 및 개량사업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2천320억원이 확정·반영되었으며, 이에 남원시는 도로환경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개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점을 설명하여 내년도 우선 추진을 요청했다.

남원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필요성, 당위성 등 설득 논리를 가지고 전북도,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전경식 부시장은 "시의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등의 방문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주민공동체·지역자원 관광 활성화 탄력

문체부·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6개소 선정

주민중심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거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1 임실군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6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올해 처음 관광두레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6월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를 통해 서류평가, 온라인아카데미,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 등 심사를 거쳐 최종 6개소가 선정됐다.

주민사업체 사업유형으로는 사과와 토마토 등 산림농촌 체험 분야 3개소와 반려견 식품·힐링 밥상·과일청 등 식음 분야 3개소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주민공동체의 참여와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한 관광 관련 사업체 육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국관광공사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전액 국비로 올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해 사업체당 500만원 상당 지원을 포함, 이후 최장 5년간 1억 1000만원 상당의 단계별 맞춤 지원을 받게 된다. 전문교육·견학 등 창업기반을 쌓을 수 있는 지원부터 시범사업, 업체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심민 군수는 "주민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두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 관광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과실전문생산단지 공모 남원시 운봉지구 선정

국비 11억2800만원 확보

남원시는 FTA기금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안정적인 과실전문단지 기반확충에 따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전국 공모에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운봉지구가 선정, 국비 11억28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 사업은 과수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경작로 포장, 배수로 정비, 용수원 개발 등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010년부터 첫 사업 발굴을 시작으로 금지, 송동, 대강, 인월, 아영, 주생, 덕과지구 등에 본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운봉읍 일원은 지리산 바래봉과 허브밸리, 백두대간 등 천혜자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해발 400~700m 고원분지를 이루는 과실재배 최적의 지역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포도와 사과는 향과 빛깔, 당도가 뛰어나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혜면적 30ha에 총 14억 원을 투입, 운봉읍 일원에 안정적인 과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과실 주산단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 시장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솔로없는 영화제 개최

남원시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도킹텍프로젝트와 함께 솔로없는 영화제(프레 춘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영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 3일간 도시재생사업으로 완공된 빨간벽돌(남원시 동헌길 98) 야외에서 상영을 진행하며, 15일 지역에서 만들어진 단편영화 3편(스승의날, 큐브, 은희엄마 구독좋아요)의 개막작을 시작으로 멜로 단편영화 3편 장편영화 2편(1회차 오후7시, 2회차 오후9시) 상영을 통해 1일 2회 야외 상영 예정이다.

남원시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 도시인 남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어진 솔로없는 영화제는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선정, 프레 영화제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향후 '춘몽영화제'라는 남원시 영화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한편, 관람 인원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및 도킹텍 페이스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국립임실호국원, 제7회 전국사진공모전 접수

국립임실호국원은 오는 29일까지 제7회 전국사진공모전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사진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임실호국원을 소재로 촬영한 작품이면 참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제출자의 편의와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현상된 사진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비대면 방식인 이메일(jeong03@korea.kr)로만 접수하고 있으며, 최종 수상작은 호국영령의 고귀한 정신을 알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작품, 국립임실호국원을 알릴 수 있는 작품, 전시회나 화보 등에 활용가치가 높은 작품, 표현성 및 기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결정된다.

상장과 함께 대상(국가보훈처장상) 1명에게 상금 100만원, 금상(광주지방보훈청장상) 1명에게 50만원, 은상(국립임실호국원장상) 2명에게 각 30만원 등 총 22명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찾아가는 독거노인 건강꾸러미 제공

순창군이 이달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취약계층 독거노인 130가구를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방파스 등 5가지로 구성된 건강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관 등의 운영 중단되고 관련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돌봄 공백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해당사업을 통해 홀로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의 안부 확인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코로나19 의심증상인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대면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개별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자가 신체활동 유도와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맞춤형 건강상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